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고용 부진에도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증시 주요지수 혼조: 다우 +1.14%, 나스닥 -0.80%
- 미국 6월 비농업 고용 '쇼크'..예상 절반 수준
- 실업률은 구직 단념자 증가에 4.2%로 하락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지수 사상 최고

미국증시는 7월 2일(현지시각) 지수별로 혼조 마감. 이날 발표된 미국의 전달 고용 보고서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고 노동시장 참여인구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샀으나 그럼에도 부진한 고용 지표는 금리 인상 시점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져 금리 하락, 달러 약세를 야기함. 이는 경기민감주와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동했으나 전일 급락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해 대형 기술주는 대체로 부진.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14% 상승한 52,900.07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80% 하락한 25,832.67에 마감. 나스닥 100지수도 1.61% 비교적 큰 폭 하락. S&P500 지수는 전일 증가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7,483.24로 거래를 마쳤고 러셀 2천 지수는 0.55% 하락.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2.65% 하락한 16.15에 마감.

(다우지수 +1.14%/ 나스닥 -0.80%/ S&P500 +0.00%/ 러셀2000 -0.55%)

미국증시는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로 금요일(현지시각 3일) 휴장.

고용 보고서 예상 대폭 하회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6월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쇼크' 수준이었음.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5만 7천명 증가해 11만 5천명 증가를 기대했던 다우존스 집계 기준 전문가 예상치를 절반 수준으로 하회했고 앞서 공개됐던 4~5월 일자리 증가 폭도 총 7만 4천명 하향 조정해 일자리 증가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나타냄. 월드컵 특수로 여가/接客업에서의 일자리 큰 폭 증가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해당 산업에서 일자리가 6만 1천명 감소했고 의료 부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이 앞선 1년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음.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수치 4.3%와 시장 예상치 4.3%를 모두 하회. 다만 이는 실질적인 실업인구의 감소를 반영한 긍정적인 수치라기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5월 61.8%에서 6월 61.5%로 0.3% 포인트 하락한 영향, 즉 구직을 포기한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어 실업률도 줄어든 것으로 노동시장 침체를 가리키는 신호에 가깝다는 분석. 실제 구직 단념 인구는 10~30대 젊은 층에 몰려 있어 향후 노동 시장 활력 둔화, 그리고 노동 시장 둔화에

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임금 상승률, 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 실제 6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해 경직적 임금 수준을 반영.

한편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시장 예상을 하회해 실업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반영. 최근 고용 관련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채용도 해고도 정체된 양상’이 두 가지 고용 지표에서 함께 확인됨.

이날 발표된 부진한 고용 지표는 연준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약화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보다 집중하게 해 연내 금리 인상 경계감을 높였던 직전 흐름에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날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베팅이 다소 후퇴, 단기물 중심 국채금리 하락으로 반영됨.

이란-미국, 호르무즈 동행료 둘러싼 이견 여전

미국과 이란은 도하에서의 중재국을 통한 간접 회담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전히 호르무즈 동행료 문제와 핵합의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 없이 입장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카타르 회담에서 호르무즈 동행료 징수를 고집하는 이란에 1천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란은 그보다 동행료 징수 쪽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

특징종목

AI 반도체: 전일의 여진

전거래일 급락했던 메모리 및 AI 관련주는 이날도 반등 없이 추가 하락해 나스닥 지수 낙폭 확대의 직접적 원인이 됨. 전거래일 메타 플랫폼스(-4.90%)의 유휴 컴퓨팅 용량을 임대하는 AI 클라우드 사업, ‘Meta Compute’ 검토 소식에 강력한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 미국증시 반도체주가 급락한데 이어 한국증시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0% 내외 급락했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와 화홍그레이스 역시 10% 내외 하락. 일본 증시에서 키옥시아 역시 13%대 낙폭을 기록. 이어 열린 이날 미국 증시에서도 이 여진이 가시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

이날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50%), AMD(-4.26%), 인텔(-5.25%), 엔비디아(-1.39%), 브로드컴(-2.41%), 퀄컴(-3.12%), 마벨 테크놀로지(-9.84%), 샌디스크(-14.13%), 웨스턴 디지털(-9.92%),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0.3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7.35%), 램 리서치(-10.19%), KLA(-11.51%) 등 메모리/스토리지/장비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급락세를 연출. 인텔(-5.25%)은 이날 HSBC에서 목표가를 기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했고, 웨드부시는 테슬라가 인텔 출신 주요 인력을 테라팜 프로젝트에 채용한 사실이 인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지만 이날 추가 하락을 방어하지는 못함.

이외 AI 네트워크 관련주도 동반 하락,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12.99%), 코닝(-10.81%), 코히어런트(-9.5.7%), 루멘텀 홀딩스(-9.09%), 시에나(-8.65%), 셀레스티카(-7.03%).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44% 하락했고, SMH(-4.54%), SOXQ(-5.54%), SOXX(-5.57%), DRAM(-7.94%), DISK(-9.57%) 등의 대표 반도체 ETF도 전일 급락에 이어 추가 하락.

다만 이번 이슈는 AI 인프라 투자의 결정적 감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참고: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강한 AI 수요를 창출’, 7/2, 권영배) 더 수주 잔고라는 더 큰 그림을 보면 현재의 하락은 오히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효한 상황(참고: ‘AI 인프라 수요 축소 우려는 기우다’, 7/2, 김영건)이라고 당사는 판단함. 대체로 메타의 이번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에 대해 최신 GPU는 프런티어 모델 학습에 집중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구형 자산을 임대를 통해 수익화하며 투자금 회수 속도를 높이는, 자산 재배치 성격이 짙다는 의견. 다만 “혹시 메타가 남아도는 컴퓨팅 용량이 있을만큼 투자를 과하게 해왔고, 때문에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겠다”는 한편의 직관적 우려는 그간 과도한 쓸림 속 상승폭이 컸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날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둔화에 대한 일부 우려를 자극함.

전일 메타의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소식을 경쟁 심화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에 급락했던 코어위브(-4.60%), 네비우스(-5.92%), IREN(-10.39%), 어플라이드 디지털(-6.93%) 등의 이른바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도 반등 없이 추가 하락.

한편 엔비디아(-1.39%)는 유망 AI 스타트업에 AI 개발에 필요한 GPU 연산 자원을 제공하고, 대신 향후 제품과 클라우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받는 방식의 ‘수익 공유’ 사업 모델을 내놓음. 실제 호주의 AI 기업 샤론시가 최대 4만개의 엔비디아 GPU를 구축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AI 인프라 기업 퍼머스 테크놀로지 역시 최대 17만개의 엔비디아 GPU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앞서 지난 1월에는 오픈시가 아마존, AMD 등과 지분 투자 및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이는 AI 기업들 사이 GPU 확보 경쟁이 여전히 치열함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

빅테크 혼조: 메타 반락..MS애플 강세

빅테크는 엔비디아(-1.39%)와 브로드컴(-2.41%) 이외에도 구글 알파벳A(-0.36%)과 테슬라(-7.49%), 메타 플랫폼스(-4.90%) 등이 하락.

테슬라(-7.49%)는 이날 발표한 전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유럽 시장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5%, 전분기 대비 34% 증가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낙폭을 확대. 메타 플

랫폼스(-4.90%)는 유헤 컴퓨팅 용량을 임대하는 내용의 AI 클라우드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의 수익화에 대한 기대에도 내부 타운홀 미팅에서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일의 급등을 뒤로 하고 하락 전환.

다만 마이크로소프트(+1.62%)와 애플(+4.84%), 아마존닷컴(+0.40%)은 상승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1.62%)는 약 6천명 규모의 AI 구축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히며 약 25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함께 공개하는 등 AI 서비스 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세. 8월에는 소비자, 기업용 코파일럿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애플(+4.84%)은 AI 기능이 아이폰 교체 수요로 강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새로운 폴더블 아이폰 생산 계획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로 상승, 사상 최고가에 근접. 아마존닷컴(+0.40%)은 자사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레오'의 초기 서비스가 연내 시작한다고 밝힘. 이는 스페이스X(+2.83%)의 스타링크와 본격 경쟁에 나선다는 의미로. 다만 스타링크는 현재 위성 1만기 이상의 군집을 구축했고 가입자도 1천만명 이상 확보한데 반해 아마존은 로켓 발사 능력의 부족으로 추진 속도가 다소 더딘 상황임.

금값 상승..비트코인도 반등

부진한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자 무이자 자산인 금값이 반등하고 비트코인도 반등. 이번주 초 장 중 트로이 온스 당 4천달러를 이탈하기도 했던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반등으로 4,100달러대를 회복했고 이에 뉴몬트(+4.01%), 센테라 골드(+6.69%), 배릭 마이닝(+4.83%), 킨로스 골드(+5.28%), RING(ISHARES MSCI GLOBAL GOLD MINERS ETF)(+3.99%) 등의 관련 종목과 ETF가 일제히 상승.

최근 200주선을 이탈하는 등 극심한 약세 흐름을 이어왔던 비트코인 가격도 60,000달러, 61,000달러를 회복한데 이어 이날 62,000달러 선을 터치함. 최근의 가격 조정으로 장기 보유자와 기관 측 자금이 다시 유입되며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거 리서치는 비트코인 약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며 미즈호는 로빈훗 마케츠(+3.76%)의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30달러를 유지함. 스트래티지(+7.90%), 코인베이스 글로벌(+3.92%) 등이 상승.

이외 특징주

전일에 이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상승세를 유지. 팔란티어(+2.84%)는 DA 데이비슨이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 175달러 제시. 회사 CEO는 일부 미국 정부 고객이 오픈소스 AI로 이동했다고 언급했으나 주가는 강세를 유지함. 어도비(+4.14%)는 HSBC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 308달러를 제시. 이외 서비스나우(+0.49%), 세일스포스(+1.76%) 등도 상승 마감.

이외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섹터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애브비(+3.99%), 존슨 앤드 존슨(+3.57%), 버텍스 파마슈티컬스(+6.03%) 등의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업종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함. 모더나(+10.01%)

는 CAR-T 치료제 및 희귀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 FDA의 mRNA 독감 백신 승인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매수 소식 등을 상승 요인으로 반영.

제뉴인 파츠(+12.92%)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오릴리 오토모티브(-2.63%)의 검토 소식을 호재로 반영해 급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혼조: 단기물은 하락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물은 하락했지만 장기물은 소폭 상승하는 등 혼조. 이날 공개된 고용 보고서에서 지난달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위축됐다는 점을 확인, 연내 금리 인상 베팅이 약화됐고 초반 상승하던 국채금리는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전환.

이날 독립기념일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오후 2시 조기 마감한 뉴욕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 금리는 3.7bp 하락한 4.1371%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0.4bp 상승한 4.4832%, 30년물 금리는 1.5bp 상승한 4.9854%를 기록함. 30년물 금리는 장 중 5.043%대까지 오르기도 했음. 30년물 금리가 5% 선을 넘어선건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소폭 하락한 19% 수준으로 반영. 연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전장 10% 중반대에서 20% 초반대로 다소 높임.

고용지표 둔화에 달러 가치 하락

미국 달러 가치는 3거래일만에 하락 전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내용이 예상보다 부진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에 엔화가 급등한 것도 달러의 상대적 약세 요인이 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51% 하락한 100.88을 기록했고 달러/엔 환율은 전장 마감가 162.573엔 대비 0.89% 급락(엔화 가치 급등)한 161.126엔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55.8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40.00원으로 15.80원 하락함.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95원)을 감안하면 전일 증가 대비 15.15원 하락한 1,539.70원에 마감.

호르무즈 통행료 이견..국제유가 강보합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 미국과 이란의 카타르에서의 간접 회담이 긍정적 진전을 이뤘다는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의 말에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낙폭을 줄여 소폭 반등.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16% 상승한 배럴당 68.69달러

러에 마감. 브렌트유 9월물은 0.32% 상승한 배럴당 71.8달러에 마감.

금가격은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다소 완화되자 상승. 무이자 자산인 금은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채권 대비 상대 매력도가 감소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상대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음.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 이상 상승, 트로이 온스 당 4,125달러대를 기록. 은값도 1%대 강세로 온스당 61달러대를 회복.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에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